

## 청년건축사들에게 미래를 건다

Our Future Rests on Young Architects

지난 5월 7일 오후 본 협회 5층 회의실서 대한건축사협회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역대 회장 몇 분과 현 회장단 그리고 감사와 각 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장소 사정(정보통신 회의실 무상임대)으로 인한 시간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하지 못하고 아쉽게 끝을 마쳤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 책자를 받아본 참석자들은 표지를 보고 놀랐으리라 본다. 주관은 협회기구도 아니며 생소한 이름의 토론회준비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당연히 있어야 할 주최자는 없었고 다만 다소 큰 글씨로 대한건축사협회 토론회준비위원회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그로부터 8일 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건축사 한 분으로부터 강의 중 전화를 받았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활성화해야하는 바 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주제발표를 해 달라는 청탁이었다. 평소에 대화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분은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 자신이 속한 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며 각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모두 모여 자신들이 속한 위원회를 소개도 하고 활동에 대하여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자극과 반성,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어 협회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참 좋은 생각이니 순서를 밟아 진행해 보라"고 격려한 바 있었기에 쾌히 수락하였다. 종일 강의가 있었기에 다음날 전화하여 원고 수량과 시간 등 구체적인 것을 상의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었다.

청년건축사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젊은 건축사들(대부분 40대로서 중견건축사라는 말이 맞을 것이나 우리의 현실로 봐서 칭한 것이다. 청년의 규정은 대개 40세까지 또는 45세까지로 규정한다)은 그간 자비를 보태어 위원회를 지방에서 개최하기도 하면서 또래 건축사들과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밤새워 토론하고 지역의 고민도 함께 나누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하였다.

이들의 결론은 긍정적이고 건전하여 기존의 협회에 적극 참여하여 제도권 안에서 잘못되거나 비능률적인 제도나 관행을 바꿔보자는 것이었고 이 중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이었다.

위원회 활성화의 당위성은 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회원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다. 디지털시대는 전문화 세분화를 더욱 더 요구하는 바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고 세포 하나 하나가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원론적 요소 외에도 정관개정 작업에 수개월의 노고를 바쳤으나 이사회에서 단 한 조항도 살아남지 않고 폐기된 것이나 새건협의 A-Z까지의 실천공약보다 더 많은 사항을 더욱 세세하게 일찌감치 만들어 놓은 건축개혁백서가 우리에게 있었고, 또한 다시 개정작업을 하였는데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기성 집행부에 대한 불만족이 근인인 듯 하다.

젊고 작품깨나 한다 싶으면 새건협을 기웃거리는 풍토에서 이들의 “협회를 사랑하기에 협회 안에서 개혁하자”는 논리는 참으로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고, 협회의 내일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는 이러한 일이 혹여 협회의 성토장이나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등으로 소극적 협조만 함으로써 주최도 없고 주관만 있는 토론회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내용에 비해 격이 떨어졌고 원고료도 없고 제비용도 준비위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했던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진행상으로 볼 때 그리 잘된 것은 아니다. 즉

첫째, 발표자 중 한 분은 제한시간을 너무 넘겨 청중을 지루하게 하였으며, 주제에서 벗어난 발표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

둘째, 토론자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고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띠었다.

셋째, 협회 사정상 어쩔 수 없었으나 장소로 인한 시간제약으로 충분한 토론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준비위원들이 발표자를 반으로 줄이고 미리 원고를 검토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면 시간도 충분하고 지루하지도 안 했으며 더욱 알찬 토론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회는 대성공이라고 필자는 평하고 싶다. 이는

첫째, 이들의 충정을 집행부에서 알았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이고 대안 없는 성토와 불평이 아닌 건전한 모임이라는 것을 인식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특히 전·현임 감사들까지 참석하였기에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

둘째, 많은 청중이 모였다는 사실이다. 협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그리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 않는 편인데 80여명 이상이 참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이들이 노력한 대가이며, 특히 역대회장의 참석과 충고 등은 본 토론회를 밝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리더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리더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필자는 미디어의 발달, 특히 디지털시대에는 여론을 주도하여 형성하는 이들을 말한다고 하고 싶다. 이 여론은 건전하게 형성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득권자는 그들에게 어느 한쪽만 보거나 치우치지 않는 사고와 판단을 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미래를 짊어질 청년건축사들이 협회 각 분야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한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가 되도록 훈련하고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 회의나 토론회는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나 바로 이러한 장래를 위하여 더욱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건축개혁백서를 보면 각 부문별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데이터와 더불어 원론적인 해결책까지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몇 가지 대안을 만들고 이를 수렴하여 통합된 하나의 의견으로 집합시키는 역할이 그간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일례로 협회의 운영제도에 있어서 “이사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이사는 회원을 위해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못하고 회장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이 있어, 별도로 정한 이사 자격규정에 적합한 상순위로 필요한 이사를 선임해야한다”고 백서는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이를 연구하고 토론회나 공청회에 붙여 합의점을 도출해야하며, 이 사항들은 즉시 또는 최소한 1년 이내에 이를 정관 또는 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사회에서 폐기되지도 않을 것이요, 총회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다시 가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진행이 다소 서툴다하여도 성공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토론회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 위원회가 계속하여 이러한 모임을 주최해주기를 바라며, 회장의 투표권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고 볼 수 없기에 협회에 무관심해 질 수밖에 없는 일반회원들의 사기를 살리는 회장 직선제 문제와 협회의 조직개편 문제 그리고 임원의 선출기준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론에 붙여 줄 것을 바란다. 또한 집행부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최소한 위원장 회의라도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각 위원회별로 토론회 소관 사항을 정하고 협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을 요구한다.

개혁이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작은 물꼬가 큰 강줄기의 흐름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누군가 미래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내일이라고 하였다. 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이들의 노고를 거듭 치하하며 보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한다. **㉮**